25일 강진베이스볼파크에서 국내 2군 10개팀이 참가하는 2010 퓨처스 인터리그가 개막했다. 남부리그 최하위 KIA는 북부리그 2위 LG와의 개막전에서 7-10으로 역전패를 당했다. /강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진서 프로야구 2군리그 플레이볼

30일까지 24경기 펼쳐…나지완·홍세완 등 몸 만들기 구슬땀

남도 1번지 강진에서 프로야구 2군들의 열전이 시작됐다.

25일 강진베이스볼파크에서 프로야구 8개 구단을 비롯해 상무 야구단, 경찰청 야구단 등 국내 2군 10개팀이 참가하는 2010 강진 퓨처스 인터리그가 개막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인터리그에서는 하루 두 경기씩 총 24경기가 치러진다.

남부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KIA 타이거즈는 25일 북부 2위 LG 트윈스와 인터리그 개막전을 가졌다.

KIA는 이날 경기에서 타격 부진으로 2군에 내려온 '한국시리즈 MVP' 나지완과 지난해 '퓨처스리그 올스타 MVP' 이명환이 나란히 홈런포를 쏘아올렸지만 선발 정용운이 5와 3분의 2이닝 8실점의 부진한 피칭을 보이면서 7-10으로 역전패를 당했다. 경찰청 야구단은 롯데 자이언츠를 16-2로 대파했다.

2군 리그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퓨처스 인터리그는 지난 2007년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올해로 2회째다. 이번에는 남도가 뜨거운 도전의 무대가 됐다.

강진베이스볼파크는 넥센 히어로즈가 2군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 인터리그 참가를 위해 삼성 라이온즈도 이곳에 짐을 풀면서 넥센과 한 지붕 두 가족이 됐다. 오전 11시 LG와의 주중 3연전을 치러야 하는 KIA는 해남에 베이스 캠프를 마련했고, 주말 한화와 3연전이 예정된 상무 야구단은 오는 27일 광주에 짐을 푼다.

10개팀 선수들이 집결하는 베이스볼파크는 야구인들의 '사랑방'이 됐다.

25일 오전 베이스볼 파크 3·4구장에서 KIA와 LG, 경찰청과 롯데의 경기가 벌어지는 동안 1·2구장에서는 넥센과 삼성의 훈련이 진행됐다. 2군 시합 준비를 위해 두산 베어스와·SK 와이번스까지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경기장 곳곳에서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야구인들의 대화마당이 펼쳐졌다.

1군 무대를 노리는 선수들의 열정적인 플레이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프로야구 스타들의 모습도 지켜볼 수 있어 야구팬들의 발길도 분주하게 이어졌다.

부상과 부진으로 2군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KIA의 나지완·홍세완은 물론 국가대표 출신의 박진만(삼성)·외야수 이진영(LG)과 프로야구의 전설 장효조 삼성 2군 수석코치 등이 강진을 누비고 있다.

/강진=김여울·남철희기자 wool@

'코리안 브라더스'의 힘 보여주마!

내일 크라운 인비테이셔널 개막

〈최경주〉 〈양용은〉 〈나상욱〉

최경주·양용은·나상욱 등 총출동 시즌 첫승 도전

미켈슨·스트리커·오길비 등 톱 랭커와 한판 승부

올해 아직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코리안 브라더스'가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27일(이하 한국시각)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골프장(파70·7204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크라운 플라자 인비테이셔널(총상금 620만달러·78억원)에는 최경주(40)와 양용은(38), 나상욱(27·타이틀리스트), 위창수(38·테일러메이드)는 물론 지난해 US아마추어 골프대회 챔피언 안병훈(19)까지 출전한다.

이달 초 손가락 수술을 받아 7월 이후에나 복귀할 수 있는 앤서니 김(25·나이키골프)을 제외하고는 한국 선수들이 '전원 출동'하는 셈이다. 한국 선수들은 2005년부터 최소한 1승 이상씩 거두며 아시아 남자골프의 자존심을 세워왔다.

최경주가 지난해 부진을 딛고 '부활 샷'을 선보이고 있으나 아직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고 지난해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양용은 역시 올해 최고 성적은 2월 피닉스오픈 3위다.

최경주는 지난 23일 인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끝난 SK텔레콤오픈에 출전한 뒤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SK텔레콤오픈에서 18언더파라는 좋은 성적을 낸 최경주는 시차 적응이 변수가 되겠지만 "스윙이라든지 여러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태"라고 밝혀 이번 대회 선전을 기대하게 했다.

이 대회에서 2007년 7위, 지난해 9위 등의 성적을 낸 나상욱도 생애 첫 승을 노릴 만하다. 필 미켈슨(미국)을 비롯한 세계 톱 랭커들이 대거 출전해 우승 향방을 점치기 쉽지 않다. 지난해 우승자 스티브 스트리커·짐 퓨릭(이상 미국)·이언 폴터·폴 케이시(이상 잉글랜드)·제프 오길비(호주) 등이 출전한다.

지난주 세계 랭킹에서 51위가 돼 1992년 이후 18년 만에 50위 밖으로 떨어지는 수모를 당한 비제이 싱(피지)도 이번 대회에서 자존심 회복에 도전한다. 이번 주 순위에서는 59위까지 밀린 싱은 최근 6개 대회에서 기권 한 차례, 컷 탈락 네 번에 남은 한 대회에서도 공동 64위에 그치는 부진에 빠졌다. 미켈슨은 우승을 차지하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수 있다.

미켈슨은 이 대회에서 2000년과 2008년 우승한 경험이 있는데다 PGA 투어 홈페이지에서도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연합뉴스

생활체육 '어르신 낚시대회' 열린다

29일 송산유원지 200여명 참가

제1회 광주시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어르신 낚시대회가 오는 29일 송산유원지에서 열린다.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 주최, 광주시낚시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60세 이상 노인 200여명이 참가해 친목 도모와 낚시동호인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5개 구청과 연계해 소외계층 어르신 30여명을 추천 받아 출전토록 했으며, 참가비는 없으며 낚시에 필요한 장비들은 무료로 지급된다. 또 광산구 지산지에서 토종 붕어 보호 캠페인으로 치어를 방류할 계획이다.

김창준 회장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낚시와 같은 녹색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회를 개최해 나 갈 것"이라면서 "특히 생활체육을 즐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지도자 파견도 꾸준히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

추신수, 올스타 팬투표 14위

올 시즌 미국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구단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추신수(28)가 아메리칸리그(AL) 올스타 외야수 부문에서 14위를 달렸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25일(한국시각) 발표한 올스타 팬 투표 1차 중간 집계 결과 외야수 부문에서 12만7042표를 얻어 14위에 올랐다.

1위는 2001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후 작년까지 9년 연속 3할대를 친 '타격 기계' 스즈키 이치로(37·시애틀)가 차지했다. 올 시즌까지 10회 연속 올스타전 출장에 도전하는 이치로는 추신수의 3배에 가까운 36만6903표를 얻었다. /연합뉴스

40년 '연구생제도' 폐지 가닥

한국기원, 입단대회 방식 개편

40여년간 한국바둑의 젖줄 역할을 하던 '연구생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한국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둑발전위원회'는 25일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구생제도 폐지', '영재입단대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프로기사입단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바둑발전위원회는 2월부터 최규병 기사회장·김수장 9단·최명훈 연구생 수석사범·박덕수 세계사이버기원 고문·김진환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김민희 3단으로 구성된 '입단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행입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둑최강국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안은 내년까지는 현 연구생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과도기입단제도를 시행한 후 2012년부터 연구생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8차례의 입단대회에서 10명의 프로기사를 선발하는 현행 제도를, '영재입단대회'를 포함한 3차례 대회에서 11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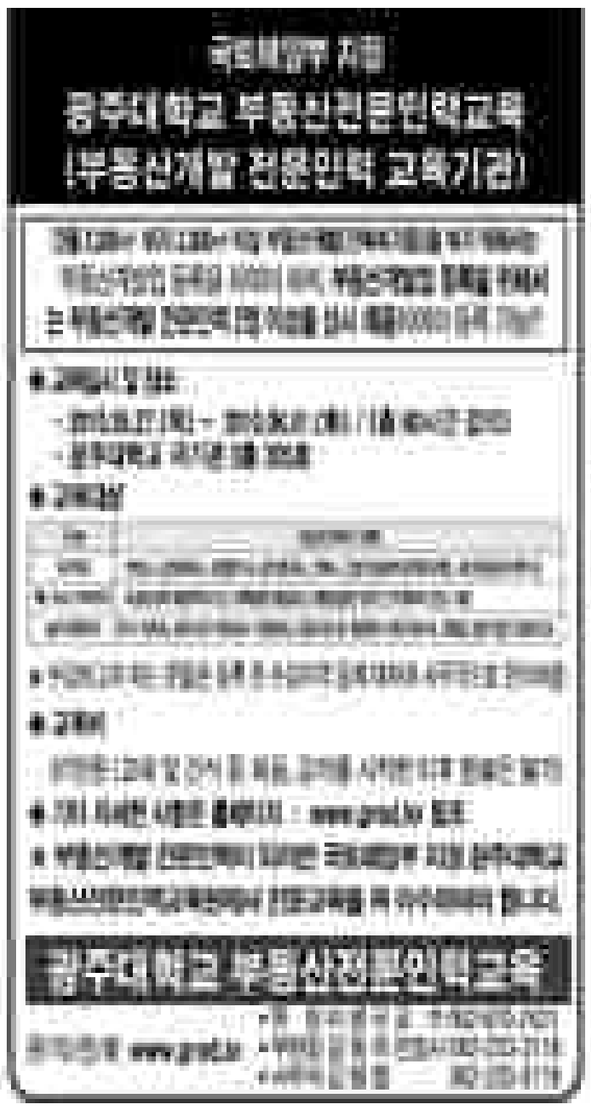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는 정규입단대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해 7명을 한꺼번에 선발한다. 7~8월에는 만 1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영재입단제도'를 신설해 2명을 선발하고 여자입단대회에서도 2명을 뽑는다.

연구생제도는 1971년부터 시행된 프로기사 육성기관이다. 그러나 인원이 늘면서 지나치게 서열화 돼 입단병목현상이 벌어졌고, 입단 평균연령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한국 남녀 탁구 2연승 질주

한국 남녀 탁구 선수들이 2010 세계선수권대회(단체전)에서 나란히 쾌조의 2연승을 달렸다.

김택수 감독이 이끄는 남자대표팀은 25일(한국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회 챔피언십 B조 2차전 경기에서 오상은(KT&G)과 유승민·주세혁(이상 삼성생명)을 앞세워 루마니아를 3-1로 물리쳤다.

전날 개막전에서 체코를 3-1로 꺾었던 한국은 2연승 행진으로 8강 직행 기대를 부풀렸다.

현정화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 대표팀도 김경아·당예서(이상 대한항공)·문현정(삼성생명)의 활약으로 C조의 두 번째 상대인 우크라이나를 3-0으로 제압, 전날 프랑스전 승리에 이어 2승째를 기록했다. 한국은 26일 헝가리, 27일 홍콩에 이어 28일 북한과 남북대결을 벌여 8강 직행을 노린다. /연합뉴스